

‘삼성전자 갑질’ 브로드컴, 200억 규모 자체 시정방안 제시

공정위,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개시
반도체 분야 상생기금 200억 조성
사측 “부품 선택권 제한 없을 것”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상생기금을 내놓겠다는 내용의 자체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9일 브로드컴 본사인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한국지사인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등 4개사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1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피심의 사업자가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처

벌보다 신속한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조정제도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선택권 제한 금지 등 경쟁 질서 회복 방안과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자 상생방안,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과 품질보증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이 해당 기간 벌어들인 관련 매출액은 7억5000만달러(9369억7500만원) 수준이다. 브로드컴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정확한 피해규모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삼성전자는 수십억원 규모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약 130일 동안 브로드컴과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브로드컴은 우선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부품의 선적 중단,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부품 공급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부품선택권을 제한하지 않고, 자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정방안의 이행과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설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독립적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감독관을 임명·운영하며,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 등을 포함한 임직원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들이 익명으로 시정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거나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

등 내부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자 상생지원을 위해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브로드컴과는 독립적으로 반도체전문인력 양성(77억원), 중소기업자 기업 창업·성장 지원(123억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전자가 장기 계약(LTA) 기간 동안 주문해 2022년 3월 이전에 출시된 스마트기기 제품 및 모델에 탑재되는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3년 기간의 품질보증을 적용하고, 3년 동안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모델에는 2021년 8월 출시한 ‘갤럭시 Z플립’, 2022년 2월 출시한 ‘갤럭시 S22’ 등이 포함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부 “조선업 신규 국내인력 유입 촉진”

장영진 1차관 조선업 현안담회
마이스터고·지역대학 등서 특강
채용 설명회, 인력양성사업 추진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에 해소방안과 관련해 법무부와 공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 인력뿐 아니라 국내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작업환경과 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9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조선업 인력 현안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외국인력뿐만 아니라 국내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생산교육과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채용지원금 등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생산인력을 적기에 공급한다.

또 조선협회 등과 지역별 채용설명회, 마이스터고·지역대학 산업특강 등 유치 홍보활동을 통해 조선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조속히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인력 등 현장 애로사항에 신속 대응키로 했다.

장 차관은 “근본적인 인력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작업환경과 임금구조 등 개선을 통해 ‘조선소가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도 저가수주 방지, 원·하청간 상생협력 등을 통해 임금구조를 개선하는 등 관련대책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국내 조선산업이 AI(인공지능)·로봇 등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디지털화로 인력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업계에도 자발적으로 임금구조 개편, 생산 스마트화 등 산업 체질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국내 조선업은 개선된 수주실적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조됨에 따라 생산인력 등 인력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어려운 작업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인력공급이 부족해 인력수급 불균형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는 이에 지난 6일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에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비자발급 국내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도입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고졸 이상의 외국인 연수생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단순 노무인력(E-9) 등이 조선업으로 유입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전력량계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 인상

가구당 14만5000원→15만2000원

설 명절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가 추가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당 평균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오른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이나 한부모가족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두 차례 인상에 이은 세 번째 추가 인상으로,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만7000원(하절기 9000원, 동절기 11만8000원)에서 19만2000원(하절기 4만원, 동절기 15만2000원)으로 51%(6.5%) 인상된 수준이다.

추가 인상분은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실물카드 방식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산업부는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캠퍼스 39개’ 폴리텍대… 창원·바이오·강릉 취업률 높아

지난해 취업성과 우수 캠퍼스 발표
창원 캠퍼스, 전 학과 취업률 강세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39개 캠퍼스 중 창원·바이오·강릉 캠퍼스와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취업 성과가 높은 곳으로 선정됐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창원캠퍼스의 경우 금형, 기계, 산업설비, 전자, 소재 등 뿌리기술부터 신산업 분야까지 모든 학과의 취업률이 고르게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9일 폴리텍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해 대학정보공시(2년제 학위과정)와 고용보험가입(직업훈련과정) 기준 취업률 및 유지취업률을 종합 반영해 이뤄졌다.

취업 우수학과로 선정된 14개 학과는

바이오, 나노, 빅데이터, 항공 정비·수리·개조(MRO) 등 대표적인 미래 신산업 전공이 주를 이뤘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동향을 반영한 기술인재 양성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2년제 학위과정 취업 우수학과는 유지취업률 100%를 기록한 익산캠퍼스 나노측정학과와 바이오캠퍼스 바이오품질관리과·바이오나노소재과, 춘천캠퍼스 미디어콘텐츠과 등 4개 학과와 인천캠퍼스 건축설계과, 아산캠퍼스 자동차기계과 등 총 7개 학과가 꼽혔다.

이 중 바이오캠퍼스는 지난 2006년 개교한 국내 유일 바이오 특성화대학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1호코로나19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 개발의 숨은 주역으로 졸업생 32명이 주목받기도 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1년 미만 국비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훈련과정으로는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 분당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융합소프트웨어과, 남인천캠퍼스 항공MRO과 등 7개 하이테크 과정 운영 학과가 선정됐다.

특히,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는 하나금융티아이 맞춤 인력양성반을 운영해 2년 연속 취업률 100%를 기록했다.

아울러, 폴리텍대는 올해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기술 분야 10개 학과를 신설해 모집 중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13일까지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합격 및 등록과 상관 없이 지원 가능하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인천공항공, LA공항과 교류 활성화 ‘맞손’

국제산업 트렌드 논의 등 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지시각 지난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 월드 에어포트(LAWA)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LA공항은 북미 공항 중 가장 큰 규모의 여객과 환승수요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허브공항으로, 인천공항과 LA공항은 지난 2001년 협력협정을 체결한 후 국제 항공수요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 해왔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공식적인 교류가 전무해짐에 따라 양 공항은 이번 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양 공항 간 정보·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은 ▲공항공 관련 정책 및 국제산업 트렌드 정기적 논의 ▲정보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진행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양 공항은 미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 관심사 발굴 및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